



한국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字日報 제10525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00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6년 1월 21일 수요일(음력 12월 3일)

제주~칭다오 항로 사활, 중고차에 달렸다?

도, 물동량 확보 비상 속 다음 주부터 중고차 선적 기준 인천항·부산항 통한 수출 물량도 소화 검토 “제주~칭다오 개설 취지·형평성 문제 우려” 지적도

만성적인 물동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칭다오 항로에서 다음 주부터 중고차 수출이 시작된다. 물동량 문제 해소의 시발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다음 주 운항되는 제주~칭다오 항로 항차에서는 4TEU(컨테이너) 분량의 차량 16대가 중앙아시아 수출길에 오를 예정이다. 중국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첫 중고차 수출은 도내 업체가 담당한다.

기존 도내 중고차 수출 업체들은 제주지역 차량을 인천항으로 보낸 뒤 중국 또는 러시아를 경유해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수출해 왔다. 이 경우 컨테이너 1개당 제주항에서 인천항으로 보내는 비용 30만원과 인천항에서 중국을 거쳐 중앙아시아까지 보낼 때 5800달러(약 850만원)를 합친 880만원 가량이 든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1개에 중고차 4대를 싣는 것을 고려하면 1대당 물류비는 22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제주항에서 칭다오 항로를 통해 중국으로 중고차를 보내는 물류비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업계에서는 운송 업체 간 경쟁이 시작되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물류비는 선적 방식, 환적 비용, 현지 통관 조건 등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중고차 수출업자들도 기존 인천항과 부산항을 통한 중앙아시아 수출 물량을 제주~칭다오 항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육지부 중고차 수출업자들이 인천항과 부산항을 통해 보내던 중고차를 제주로 보낸 뒤 칭다오 항로를 통해 중앙아시아로 수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물류비, 선적 안정성, 통관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도내 렌터카 업체에서 나오는 중고차 매물이 육지부 경매장에 거쳐 수출길에 오르는데 제주에서 직접 렌터카를 매입해 인천이나 부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출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제주~칭다오 항로 중고차 수출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운송 시간 단축, 교역 다양화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항로에서 중고차 수출이 물동량의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당초 설계한 정책 목표와 어긋나다는 지적이다. 중고차 수출 사업 자체가 지난 몇 주 사이에 급하게 추진돼 아직 구체적인 물류비와 지원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미지수이다. 또한 다른 수출 물품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제주도는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통관 인프라 개선과 물동량 확보를 위해 5개 사업에 53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오소범기자

올해 크루즈관광객 80만명 전망

올해 제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크루즈가 제주항에 137회, 강정항에 211회 등 총 348회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같은 입항 계획을 토대로 올해 80만명에 달하는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에는 제주항과 강정항에 크루즈가 321회 입항했다. 크루즈 방문객은 75만 6031명으로 집계돼 2023년 10만 1500여명에 견줘 7배 늘었다.

한편 제주도 분석에 따르면 크루즈 1척이 입항해 승객 3000명이 방문하면 8억원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이상민기자



풍랑주의보 발효된 제주 제주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20일 제주시 응암해안도로에 거센 파도가 물어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시 남문2지구 도시재생사업 시작… 3면 / 유네스코 유산 해녀, 1년 새 10% 줄었다… 5면

제주 오늘부터 눈 동반 한파 온다

21~22일 산지 5~15cm·해안지역 3~8cm 적설 예상

기온은 최저 -1~1°C(평년 2~4°C), 최고 2~7°C(평년 8~11°C)로 낮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강풍이나 동파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강풍과 풍랑, 대설로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항공·해상 운항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에도 새벽(0~3시)부터 오전(6~9시) 사이 비 또는 눈(산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최저 0~3°C, 최고는 7~9°C로 예상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도, 한파·대설 대비 재난본부 운영

읍면동별로 자율방재단 중심 안전예찰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까지 산지와 중산간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눈 날씨 등이 예보됨에 따라 한파·대설 대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기상특보 발표 시 재난 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운영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제설제 사전 비축과 제설 장비 전진 배치를 완료하고 도로 열선과 자동염수분사장치 등을 적극 활용해 도로 결빙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

읍면동별로는 지역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주요 이면도로와 결빙 취약 구간에 대한 제설 작업과 안전 예찰을 강화해 생활권 도로의 통행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 또한 강풍과 너울성 파도에 대비해 해안도로와 방파제, 항·포구를 대상으로 간판 등 시설물과 어선 겹박 상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9일 오후 행정안전부 주관 한파·대설 대비 관계 기관 대책 회의에 참석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의 맛, 그대로. 손끝의 정성, 그대로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